개발자 특강 (직업의 세계와 진로선택)

컴퓨터공학과 20191125 2학년 박형민

이주현 선배님은 컴퓨터공학과 14학번 출신으로 현재 기프티콘 개발팀에서 백엔드개발자(3년차)로 계십니다. 코드리뷰를 통해 사전에 오류가 뜨는 것을 방지하고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고 여기서 백엔드 개발이란 DB와 APZ 서버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은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프론트 엔드 개발보다는 이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과 생활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 하신 부분은 셀프 브랜딩으로 자신이 한 다양한 활동들을 잘 정리해 블로그나 깃허브에 올리는 것을 얘기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시간에 한 과제나 수업내용을 잘 정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있는 회사나 면전준비에 대한 정보들을 찾으면 많이 나와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백엔드 개발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를 들어 동시 다발적으로 접속해서 서버장애가 발생하였 을 때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질문에는 포트폴리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에는 많은 것보다는 오랜 시간 꾸준하게 한 하나의 포트폴리오 한 개면 충분하다고 하셨고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가려는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비스 회사는 자격증을 보지 않는데 자격증이 목표가 아닌 공부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백엔드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취업을 위해서는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활동을 잘 기록하는 습관을 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특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강의를 듣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